한글 전문용어 관리의 특성에 관한 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Hangul Terminology

최석두,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sdchoi@mm.ewha.ac.kr http://choilab.ewha.ac.kr
Suk-Doo Choi, Dept. of Lib. and Info. Sci., Colleg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어관련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필요한 용어관련 도구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글 전문용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하고, 아울러 문헌정보학과 전문용어학의 관계를 논하여 문헌정보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한다.

1 서론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편리한 것은 언어이며, 전문가가 사고활동을 할 때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각 분야에서의 전문적 개념이다. 그 전문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전문용어이다. 따라서 지식 및 정보와 관련된 과제의 대부분은 전문용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자료를 처리해야 하며, 오래 전의 자료로부터 최근의 자료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용어는 분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세대에 따라 변천하며, 끊임 없이 신조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 기술과 표현의 다양성, 다의성, 양적인 비가산성(사실, 1개 국어로 표현되는 용어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다), 계층관계의 다중성, 개념의 부분공유, 중첩구조, 관계의 상대성 등과 같이 부수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측면이 수 없이 많다. 한글 용어는 대부분의 언어가 갖고 있는 용어의 일반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독특한 특성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글 전문용어에 대한 관리상의 특성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한글 용어의 특성

2.1 한자의 문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많은 부분이 한자로부터 생성된 것은 한자문화권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용어처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한자의 음을 표현하는 한글부분이지만, 한자를 배제하게 되면 전문용어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잃게 된다. 한자는 한글의 다의성을 구분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전에서 한자를 부기하고 있

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용어를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한자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글용어
   - 순수한 한글 용어
   - 訓이 있으나 주로 한글로 사용하는 용어
2) 한자용어
   - 일반 한자용어
   - 한자는 있으나 표준컴퓨터코드가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용어
   - 한자음이 한글음과 달라서 다른 음의 한자로 처리해야 하는 용어
   -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나 다의성이 있는 용어
3)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용어
4)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이 중 전문용어의 처리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한자는 있으나 표준컴퓨터코드가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용어」, 「한자음이 한글음과 달라서 다른 음의 한자로 처리해야 하는 용어」 등이 있으나 전자는 국가정책적인 일이나, 차후 새로운 확장한자가 표준코드로 제정되었을 때 쉽게 일괄변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어딘가에 필요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후자는 언어습관상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 미리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그 목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의성이 있는 용어」는 한자용어만의 문제는 아니라 용어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 그 구분방법으로 어깨번호, 한자병기, 외국어병기, 한정어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험결과 한정어 사용이 가장 기술력과 식별력이 뛰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일본, 중국, 한국문헌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표기는 동일하지만(번체자, 간체자, 일본식 약자 등을 같은 한자로 본다) 다른 의미를 갖는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하여 한자시소러스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한자, 복수의 외국어, 분야(분류), 동의어, 참조(보라참조, 도보라참조 등), 참고문헌, 작성자, 등록일자 등과 같은 용어 관련 정보의 기술방법, 순서, 구두점 등의 문제를 표준화라는 관점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2 전문용어의 명명 문제

어떤 생각하고 있는 개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이름붙이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름이 없으면 개념도 없다. 이름이 없으면 개념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름을 붙일 때는 언제나 어떤 기호를 사용한다. 즉, 어떤 개념을 생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호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개념을 표현한다는 것은 실재하는 것과 이름(명칭)의 관계이다. 머리로 상상하는 행동을 표현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름은 순수하게 지시적인 의미이며 외연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기호의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연속적인 표현이다. 연속적인 표현은 주로 그림이나 음악에서와 같이 예술작품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비연속적인 표현이다. 언어에서의 단어는 이에 속한다.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연속적인 기호, 주로 어떤 언어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명명학이라 하며, 『과학의 대상과 개념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용어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용어학은 기본적으로 이 명명학과 분야를 공

유하고 있으며, 전문용어학을 「특정 연구분야의 명명학」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명명학 대신에 전문용어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문용어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신어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전문용어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다른 언어로 된 전문용어를 번역하여 사용하거나(의미차용), 원어의 음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발음차용), 다른 나라에서 차용한 용어를 다시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이름을 결정할 때, 체계적인 명명법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이름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전문가마다 다른 의미차용어, 발음차용어,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경우를 수없이 보고 있다.

전문용어는 의미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다의성을 피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언어체계에 맞는 우리의 어휘로 만들어 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꼭 의미차용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전문용어 중에는 한자어가 많았다. 그 한자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으므로 매우 편리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컴퓨터코드에 없는 한자가 많아서 입력하지 못하는 한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원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한글로만 표현한 용어이다. 원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의미를 짐작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개념이 수입되면 그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 후 가장 적합한 어휘를 대응시키면 된다. 의미차용어도 좋고 발음차용어라도 좋다. 아무리 정교한 조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히 동음이의어가 생겨나게 되므로, 한 용어를 그 집합의 다른 용어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정의라고 부르는 부분이 된다. 다만, 단일개념의 이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이 다른 이름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조어상 무리가 없도록 이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두 용어가 있다고 하자. 두 용어와 결합하여 보다 좁은 개념을 나타내는 복합명사를 만드는 경우, 결합될 수 있는 용어가 각각 별도로 있다면 복합어의 사용이 매우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발음차용어와 다른 나라의 용어를 차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언어체계에 맞도록 고치는 일, 복수의 이름을 가진 개념에 대해서는 표준화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2.3 외래어의 문제

용어학에서의 표준화 활동은 용어, 타 용어와의 관계, 개념, 개념체계, 개념체계의 표현 등과 관련이 있다. 하나의 용어가 다양한 개념을 갖거나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언어생활은 풍부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학술활동, 정보검색, 정보전달 등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개념과 용어는 분야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이 학제적인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개념을 분야마다 다르게 표기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분야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등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에 많은 분야가 분야별 용어집을 출판하고 있으며 그 분야의 연구자들은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전문용어의 경향을 보면,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도입되며, 음차어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용어의 생성시, 영어권에서는 기존 용어를 조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자어를 이용하여 전혀 새로운 용어를 만

드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한글 전용정책으로 발생한 대중의 한자이해력 저하와 한자조어의 난해함, 한자조어에서 생기는 많은 동음이의어의 문제, 외국어 특히 영어학습열로 외국어를 이해하는 인구의 증가 그리고 음차어는 별도의 조어가 필요없다는 이유 등으로 음차어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해당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용어를 들을 때 음차어가 쉽게 이해되지만, 한자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 용어를 볼 때 한자어가 쉽게 이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며, 반대로 한자어를 들을 때와 음차어를 볼 때 그 이해의 정도가 역전하게 된다. 외국어 및 외래어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중 ANSI Z39.50의 국가표준화에 대한 논의에서 한글화의 문제가 나오자 번역하지 말고 본문은 영문 그대로 하고 표지만 한글로 바꾸자는 안이 있었을 정도이다.

한글은 다양한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차어가 많아지면 외래어 표기원칙이 엄격하게 정립되어야 하지만, 원칙이 엄격하지 못하고 연구자간의 조정기구가 없어 여러 가지로 기술되고 있다. 표음주의를 선호하는 연구자들간에도 원음에 가깝게 기술하는 쪽과 한국어의 기존음을 존중하는 쪽이 있으나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많은 개념에 대하여 완전한 한자어, 음차 부분과 한자어의 조합어, 속어 등까지 포함되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은 표준화에 대한 면밀한 방법상의 절차를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장 근간이 되는 외래어 표기법, 한글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등의 선행원칙을 바탕으로, 요구분석, 목표가 되는 이용자군의 선정, 주제세분, 이용분석, 언어선택, 용어 수집 및 선정, 개념체계의 확립, 정의, 검토 등의 제정원칙, 그리고 피드백, 교육, 홍보 등 후속조치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최근 외국어의 문자조합과 발음을 이용한 한글음 자동생성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표준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표준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용어에 대한 음차어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음을 차용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방책이라 생각된다.

2.4 띄어쓰기의 문제

한 단위의 용어로 처리해야 하는 용어의 형태는 다양하다. 단일명사, 복합명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접속사를 갖는 용어, 문장형식의 용어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글의 특성상 다양한 띄어쓰기가 가능하며, 전문용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문분야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가 법률계로서 법률용어는 법률명을 포함하여 아무리 길어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북한에서의 띄어쓰기는 우리와 또 다르다. 만보춤에 대한 설명을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만보춤: 양풍의 하나로서 벌거벗고 추는 춤을 말한다. 만보춤은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부화타락하게 만드는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부르죠아무용의 하나이다. 미제는 만보춤을 다른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광범히 퍼지고있는 만보춤은 민족무용의 건전한 발전을 억제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참조).

용어관리에서 띄어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모호하게 되는 경

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띄어쓰기에서 붙여쓰기로 바꾸는 일은 간단하지만 그 역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용어에 대하여 완전한 개념단위의 띄어쓰기를 채택함으로써 대상문헌에서의 어떤 표기에도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개념단위 띄어쓰기에서 한 개의 글자로 된 개념이 조합된 복합어에서의 띄어쓰기 등 매우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띄어쓰기로서 '*a*와 *b*, *a*의 *b*, *a*에 의한 *b*' 등과 같이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용어에서도 '*ab*'를 추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5 전문용어의 개발 문제

한 국어로 표현될 수 있는 전문용어가 몇 개나 될 것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다. 다만, 과학기술분야의 개념이 적어도 5천만 개는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전문용어사전의 종류도 400종을 넘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며, 이중에는 대역어만을 수록한 전문용어사전도 많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이 대부분이며, 대대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용어표준화 활동의 결과는 거의 찾아 볼 수도 없다.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 전문분야의 개념체계, 즉 용어분류표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안이 없다. 가장 가까운 것은 국회도서관의 『대한민국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용어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기는 미흡하다.

용어의 한 쪽 측면만을 연구한다하더라도 용어를 찾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엄청난 사람, 시간, 재원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글코퍼스, 분야별 어휘사전, 기본의미사전, 어휘분류체계, 분야별 표준용어사전, 방언사전, 고어사전, 동의어사전, 대역어사전, 북한어사전, 한자시소러스, 한글시소러스 등의 각종 용어처리도구에 대하여 기본용어, 일반용어, 전문용어를 망라하는 연구의 결과와 각종 통계가 필요하다. 문헌정보학은 이와 같은 대부분의 관련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헌정보학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의 용어에 정통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학회를 중심으로 자기 분야의 용어기술과 개념을 표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 합의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표준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표기로 사용되는 용어도 많으며, 표준화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사용해온 비표준화 용어가 존재하게 된다. 즉,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해온 다양한 표기가 문헌상 실재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특정 용어가 표준화되었다고 해서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 문헌을 소급해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장기간의 문헌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용된 용어는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문헌은 검색할 수 없어 사장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용어의 이형과 변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여 이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을 수집하여 이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중요한 역할이며, 그 방법의 연구는 필수적인 연구분야가 될 것이다. 물론 기술과 표현의 다양

성, 다의성, 계층관계의 다중성, 개념의 부분공유, 중첩구조, 관계의 상대성 등과 같이 인지과학적, 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적 관점과 관련된 연구도 필수적일 것이다. 일반개념과는 달리 하나의 전문개념은 그 분야의 개념체계에서만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처리가 주를 이루게 될 때, 대상은 자연언어 전체가 되므로 그 작업의 방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용어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는 외래어까지 포함되어 새로운 용어가 생성되므로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반영구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용어의 문제는 오랜 동안 언어학이나 문학에서 다루고 있었지만, 정보를 자원화하여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 처리하고,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용어를 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일찍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용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분류·목록 분야의 주제명표목(이재철. 1966. 『이재철주제명표목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색인·검색 분야의 색인·검색어(司空哲. 1977. 『情報檢索論』. 서울: 亞細亞文化社)를 중심으로 하는 시소러스 등이 그것이다. 한글 주제명표목표가 없기 때문에 일부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우리 나라 문헌에도 LCSH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문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주제명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시소러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정보처리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나, LCSH와 같이 각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범용 용어데이터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분석되고 집적된 용어데이터의 요구와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이나 기록을 돕는 수단에 불과한 수동적인 상태가 된 것은 문헌정보학계의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활동이 지속적이지 않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전문용어학은 응용학문이다. 전문용어는 학문의 발전이나 새로운 전문분야의 출현에 따라 유동성을 보이며,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 언어 공동체의 문자 및 언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그 분야의 개념구조를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유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용어의 개념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용어와 관련된 전문가집단으로 인지적 기능의 전문가(과학자, 과학기술자, 인식론자, 철학자 등), 규범적 기능의 전문가(표준작업 전문가, 법률가 등), 이론 및 응용 언어학의 전문가(언어학자, 교육자, 번역가 등), 사회과학의 전문가(커뮤니케이션, 정치학, 경제학 등의 전문가) 등을 들 수 있다. 각 전문분야마다 전문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수집, 선정, 명명, 표준화, 기술, 정의, 평가 등과 같은 절차상의 과정이 있으며,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용어의 배포, 홍보, 교육, 이용, 유지관리, 중심기관 및 단체 등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 아울러 다국어를 목표로 한 국제적 공조활동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전문용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롭게 생성된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문용어학의 새로운 활동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자동색인, 기계번역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전문용어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용어 표준화를 달성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표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직 전문용어연구에 있어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는 기초적인 작업부터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